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Parent's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School-aged Children,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Harassment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정은희*

교수 이미숙

Major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 : Jung, Eun-Hee

Professor : Lee, Mi-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school-aged children,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harassment. Six hundred thirty seven 5th and 6th graders (306 girls and 331 boy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completed a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scale, a children's aggression scale, and a peer harassment scal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physical harassment, boys were bullied and victimized more than girls. 2) Children's aggress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hysical and relational peer harassment. Parents' marital conflict wa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aggress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physical and relational peer harassment. 3)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ggression influenced physical and relational harassment for both boys and girls.

▲주요어(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공격성(aggression), 또래괴롭힘 (peer harassmen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 아동은 학령 전 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이때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에 대처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며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ramer & Gottman, 1992).

한편, 이 시기의 또래 관계는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관계뿐만 아니라 부정적 관계도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부정적 또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또래괴롭힘으로 지적된다(이경님, 2001).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왕따 등의 이름으로 또래괴롭힘 문제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3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국 1백 50여 개 초·중·

* 주 저 자 : 정은희 (E-mail : j_silver@hanmail.net)

고교 학생 1만 5천 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네 명 중 한 명 꼴로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내 폭력이 지난해에 이어 더 늘어나는 등 고질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폭력피해의 경험은 초등학생 24.3%, 중학생 19.9%, 고등학생 11.3%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피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03년 8월 19일자). 한 보험회사에서는 집단따돌림에 의한 정신피해 치료비와 학교폭력에 의한 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생들의 어린이 보험을 신설했다(조선일보, 2003년 10월 7일자). 이와 같이 또래괴롭힘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 내에서 해결해야 할 또래 관계로 방관할 수 없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래괴롭힘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Olweus(1978)에 의한 것으로 또래괴롭힘이란, 한 사람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문제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반복적으로 또래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는 자아 존중감이 낮고(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로부터 거부되어 친구가 없으며(Hodge, Malone, & Perry, 1997), 불안해하고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Olweus, 1984; Boulton & Smith, 1994). 또한 또래괴롭힘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청년기나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성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lweus, 1993). 이에 반해 또래괴롭힘의 가해자는 불안을 나타내지 않았고,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도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lweus, 1991). 그렇지만 공격적이며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는 가해 아동들은 나중에 범죄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입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Lane, 1989; Olweus, 1994).

따라서 또래괴롭힘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고려할 때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효율적 정보가 필요하며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최근 들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해 신체와 관계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신체적 괴롭힘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신체적 및 관계적 괴롭힘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Crick과 Grotpeter(1996)에 의하면 신체적 괴롭힘은 신체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 괴롭힘은 또래 관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에서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모욕감을 느끼고 상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아동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tup, 1993)

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따돌림을 당하는 관계적 괴롭힘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이점숙·유안진, 1999). 따라서 또래괴롭힘은 신체적 괴롭힘 뿐 만 아니라 관계적 괴롭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상 살펴본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나아가 Crick과 Grotpeter(1996)의 연구에 근거하여 또래괴롭힘을 신체적 및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를 “또래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심리적인 부정적 행동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또래괴롭힘 피해를 “또래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언어적·심리적인 부정적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신체적 괴롭힘은 때리기, 차기, 밀기 등 의도적으로 다른 아동에게 해를 주거나 그들의 신체적 안녕에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 괴롭힘은 나쁜 소문 퍼뜨리기, 놀이활동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 고의로 다른 아동에게 해를 주거나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또래괴롭힘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들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먼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공격성을 들고 있는데,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공격적 성향”으로 정의되고 있다. Rona와 Debra(1998)는 교실에서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또래괴롭힘을 연구한 결과, 공격적 아동이 또래 괴롭힘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미연, 2000 재인용), Farrington(1993)도 또래괴롭힘의 가해자는 공격적 성향이 크다고 하였다. 이상균(1999)은 중학생 717명, 고등학생 807명을 대상으로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공격성이 또래폭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예성(2000)은 공격성과 가해경험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높은 공격성을 지닌 학생일수록 또래괴롭힘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또래괴롭힘의 피해자 경우에는 공격적 피해자와 수동적 피해자가 공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극도로 수동적이며 공격적 행동을 결코 보이지 않지만, 일부 아동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또래를 화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이 이러한 두 가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밝혀져 왔는데, 이들은 각각 ‘수동적 혹은 복종적 피해자’와 ‘도발적 혹은 공격적 피해자’로 불리운다(Perry et al., 1988; Olweus, 1994). Schwartz, Dodge와 Coie(1993)는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많은 아동이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 중의 일부는 공격적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행동특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연구한 민유리(200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의 경우 복종성과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성이 낮을수록, 또래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의 행동 특성에 관한 최진희(2000)의 연구에서도 과다하고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려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괴롭힘의 가해 아동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특성에도 관련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 성향과 피해 성향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욕구의 대립상태”로 정의한다. 부부갈등은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이며 정서적 위협이 된다. 즉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아동은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을 보인다(이민식, 1999). 부부갈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적응상 문제와 관련되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어 왔다(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Patterson & Zill, 1986).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학습하는데, 여러 다양한 모델 중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적 모델의 역할을 한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다른 매체들에서 묘사되는 공격행동 보다 더욱 생생하게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성은 또한 직접 경험 뿐 아니라 목격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며(정준미, 1998), 부모의 언어적·신체적 갈등을 목격한 자녀는 공격적으로 될 위험성이 높다(Grych & Fincham, 1990)는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모의 부부간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 아동의 공격성과 더 밀접히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노치영, 1998). 종합하면, 가정에서 부부간의 언어적·신체적 갈등을 많이 목격한 아동은 공격적이 되기 쉬우며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될 경우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박보경(2002)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괴롭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나 형제자매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가족분위기나 가정 내 폭력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통하여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재은(1981)은 가족구성원들이 협조하고 가정 내에서 다툼이 없으며 부모자녀가 서로 밀접하고 애정적일수록 아동은 또래관계에 보다 잘 적응하며 또래수용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또래 회생성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임경원(1997)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분위기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회생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가족의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공격성은 낮게 나타난 반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이 초등학생들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의 가해-피해집단이 가정폭력에 가장 많은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가해집단, 피해집단, 정상집단의 순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 분위기와 가정 내 폭력은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분위기나 가정 내 폭력은 부부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므로 이를 통해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하겠다. 앞으로 이들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밖에,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또래괴롭힘에서 아동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아 보다는 남아가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4; 박경숙·손희권·송혜정, 1998). 그러나 Perry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8)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오히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피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윤중, 1999). 또한 또래괴롭힘에서 신체적 괴롭힘은 남아가 더 많이 경험하며, 관계적 괴롭힘은 여아가 더 많이 경험한다(Cowen & Underwood, 1995)고 보고된 반면, 성차가 없다는 보고(임지영, 1998; 이점숙·유안진, 1999)도 있어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적다. 앞으로 아동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공격성을 관련지은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지만, 아동발달의 주요 환경인 부모의 부부갈등을 또래괴롭힘과 함께 관련지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은 가정을 토대로 형성되며 특히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한 아동이 더 공격적이 되기 쉽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함께 검토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또래괴롭힘과 아동의 공격성, 그리고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함께 규명해봄으로써 또래괴롭힘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인 학령기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1) 본 연구에서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은 보통 학령 전기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1세 정도가 되면 아동이 참여하는 사회 활동의 5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Grusec & Lytton, 1988)는 점과 초등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서 아동의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 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구로동의 2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300명 그리고 구로동과 인접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1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00명 등 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부실응답을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대상은 637명(남아 331명, 여아 306명)이다. 연령은 12세 아동이 51.3%, 13세 아동이 48.7%이고, 학년은 5학년이 41.8%, 6학년이 58.2%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 연령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35세 이하는 8.9%, 36-40세는 51.0%, 41-45세는 22.3%, 46세 이상은 3.6%로 나타나 36-40세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 35세 이하는 2.5%, 36-40세는 23.7%, 41-45세는 45.4%, 46세 이상은 14.4%로 나타나 41-45세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2.9%, 대학교 졸업이 28.1%, 대학원 졸업이 3.3%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과반수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8.8%, 대학교 졸업이 36.9%, 대학원 졸업이 8.2%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 12.6%, 상인 7.5%, 서비스직

5.3%, 교육자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축업 12.2%, 공무원 7.1%, 서비스직 5.2%, 상인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부부갈등 척도(15문항),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격성 척도(13문항),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또래괴롭힘 척도(14문항)로서 아동이 직접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만 10세와 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44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사용한 문항은 부부간 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여부,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등 8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각 차원에 대해 평가하도록 고안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8개 차원의 하위척도 중에서 빈도(부부갈등의 노출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강도(부부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해결(부부갈등의 상황이 해결된 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등 3개 차원의 15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부부간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등의 특성 요인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Grych & Fincham, 1990)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하위영역별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고, 부부갈등의 강도가 높으며, 부부갈등의 해결이 잘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s α 값이 .89로 나타나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갈등 빈도 .81, 갈등 강도 .73, 갈등 해결 .74로 각각 나타났다.

2)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urray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한 황정규(1965)의 욕구진단 검사 중에서 공격성 측정 문항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연진영(1992)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에 기초하여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은 4학년 아동보다 6학년아동이 더 친밀하며, 아동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또래관계가 보다 밀착된다(아동발달의 이해, 2003)는 점에 기초하였다.

3) 또래괴롭힘

아동의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Crick과 Grotpeter (1996)가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SEQ)를 기초로 구성하였다. SEQ는 관계적, 신체적, 친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인 3개 문항, 관계적 요인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가해척도 7개 문항, 피해척도 7개 문항으로 각각 나누어 구성하였다. 가해척도의 예를 들면, 신체적 괴롭힘의 경우, '나는 다른 아이들을 때린다' 이고, 관계적 괴롭힘의 경우, '나는 어떤 아이와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이다. 피해척도의 예를 들면 신체적 괴롭힘의 경우, '아이들이 나를 때린다'이고, 관계적 괴롭힘의 경우, '다른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나만 혼자 남겨진다'이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의 가해 또는 피해정도가 많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또래괴롭힘 가해 .77, 또래괴롭힘 피해 .83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가해 .72, 관계적 가해 .70, 신체적 피해 .82, 관계적 피해 .80으로 각각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3년 6월 14일에 부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하고 5, 6학년 2개 반의 남·여 아동 각 50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의 진술을 수정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구로동의 초등학교 2곳 그리고 구로동과 인접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초등학교 1곳을 임의 선정하여 5, 6학년 남·여 아동 총 7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각 초등학교의 기관장에게 연구 참여협조를 의뢰한 뒤, 참여를 허락한 각 반마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설문지를 배포, 작성하도록 하고 당일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700부 가운데 일부 문항이 누락되거나 이중 기재되어 있는 설문지 63부를 제외하고 총 63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SPSSWIN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전반적인 경향

<표 1>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전체 평균은 1.88점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이 중간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빈도는 1.90점, 강도는 1.83점, 해결은 1.93점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살펴보면 평균 2.06점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나 공격성이 중간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가해의 전체평균은 1.59점, 또래괴롭힘 피해의 전체평균은 1.52점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는 모두 중간수준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는 1.53점, 관계적 가해는 1.63점이며, 신체적 피해는 1.39점, 관계적 피해는 1.62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1>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전반적인 경향

(N = 637)

변인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부부갈등	빈도	1.90	.73	
	강도	1.83	.65	
	해결	1.93	.71	
	전체	1.88	.60	
공격성		2.06	.66	
또래 괴롭힘	가해	신체적	1.53	.66
		관계적	1.63	.63
		전체	1.59	.55
	피해	신체적	1.39	.66
		관계적	1.62	.75
		전체	1.52	.62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성별 차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었다.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는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를 신체적으로 더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의 신체적 피해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로부터 신체적으로 더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갈등의 빈도·강도·해결, 그리고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가해 및 피해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성별 차이

(N = 637)

변 인		성 별		남 (N = 331)		여 (N = 30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부 갈등	빈도	1.86	.69	1.93	.77			-1.28	
	강도	1.82	.65	1.84	.66			-.39	
	해결	1.93	.69	1.94	.72			-.05	
	전체	1.87	.58	1.90	.63			-.68	
공격성		2.20	.68	1.91	.60			5.74***	
또래 괴롭힘	가해	신체적	1.60	.68	1.45	.63			2.85**
		관계적	1.59	.62	1.67	.64			-1.56
		전체	1.59	.55	1.58	.55			.43
	피해	신체적	1.51	.71	1.27	.55			4.69**
		관계적	1.60	.79	1.64	.71			-.57
		전체	1.56	.67	1.48	.55			1.70

p < .01 *p < .001

다음에는 아동의 성별 집단 내에서 신체적 또래괴롭힘과 관계적 또래괴롭힘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집단의 경우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와 관계적 가해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피해가 신체적 피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집단의 경우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가해가 신체적 가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피해가 신체적 피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동의 성별집단 내에서 신체적 또래괴롭힘과 관계적 또래괴롭힘의 차이

(N = 637)

변 인		성 별		남 (N = 331)		여 (N = 30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또래 괴롭힘	가해	신체적	1.60	.68	1.45	.63			-6.54***
		관계적	1.59	.62	1.67	.64			
	피해	신체적	1.51	.71	1.27	.55			-9.23***
		관계적	1.60	.79	1.64	.71			

*p < .05 ***p < .001

3.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남녀 아동집단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표 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남아의 경우,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는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 관계적 가해, 신체적 피해, 관계적 피해와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부부갈등의 해결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나머지 관계적 가해, 신체적 피해, 관계적 피해와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남아의 경우 부부간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부부간의 갈등의 정도가 크다고 지각하는 것은 또래를 보다 더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부부갈등 후에 해결이 잘 안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은 또래를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과 관련이 없지만, 또래를 관계적으로 보다 더 괴롭히거나 또는 또래로부터 신체적 및 관계적으로 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의 빈도와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반면 부부갈등의 강도와 해결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와 유의한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가해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관계적 피해와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 부부간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고 지각하는 것은 또래를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정도가 크며, 부부갈등 후에 해결이 잘 안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반면, 또래를 관계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또래로부터 신체적 및 관계적으로 보다 더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때, 각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남·여 아동 모두 부부갈등의 강도나 해결보다는 부부갈등의 빈도에 대한 지각이 또래괴롭힘과 더 크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 남·여 아동 모두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를 신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또래로부터 신체적 그리고 관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때, 각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남·여 아동 모두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의 피해보다는 가해와의 관련정도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단순상관계수

(N = 637)

	1	2	3	4	5	6	7	8	9	10	11
1. 또래괴롭힘 신체적 가해		.53***	.83***	.26***	.14*	.22***	.54***	.27***	.11	.11	.19**
2. 또래괴롭힘 관계적 가해	.43***		.91***	.18*	.25***	.26***	.61***	.27***	.20***	.15**	.24***
3. 또래괴롭힘 가해(전체)	.81***	.88***		.24***	.23***	.28***	.66***	.31***	.18**	.15**	.25***
4. 또래괴롭힘 신체적 피해	.22***	.23***	.27***		.41***	.74***	.23***	.17**	.24***	.12*	.20***
5. 또래괴롭힘 관계적 피해	.23***	.48***	.43***	.57***		.92***	.28***	.40***	.31***	.25***	.37***
6. 또래괴롭힘 피해(전체)	.26***	.42***	.41***	.83***	.93***		.31***	.37***	.33***	.24***	.36***
7. 공격성	.44***	.50***	.56***	.21***	.35***	.33***		.35***	.18**	.14*	.26***
8. 부부갈등(빈도)	.21***	.34***	.34***	.18**	.27***	.26***	.32***		.72***	.57***	.88***
9. 부부갈등(강도)	.15**	.29***	.26***	.19***	.33***	.31***	.28***	.70***		.65***	.90***
10. 부부갈등(해결)	.10	.26***	.22***	.12*	.21***	.20***	.14*	.59***	.55***		.85***
11. 부부갈등(전체)	.18**	.34***	.32***	.19***	.31***	.29***	.29***	.89***	.86***	.83***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여아, 왼쪽은 남아집단에 해당함.

*p < .05 **p < .01 ***p < .001

3)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표 4>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여아 모두 공격성은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갈등의 정도가 크며, 부모가 부부갈등 후에 해결이 잘 안 되었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한다. 이때, 각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남·여 아동 모두 부부갈등의 정도나 해결보다는 부부갈등의 빈도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공격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표 4>를 통하여 독립-중속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속변수인 또래괴롭힘의 경우 신체적, 관계적 가해 및 피해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부부갈등의 경우에는 빈도, 강도, 해결을 합친 전체점수를 사용하였다.

중회귀분석 결과 <표 5>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먼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격성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를 20% 설명하고 있었다.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과 공격성이었으며, 이중 공격성이 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때, 두 변인은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가해를 30%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피해와 관계적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과 공격성이었으며, 이중 공격성이 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때, 두 변인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피해를 6%, 관계적 피해를 17% 각각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표 6>에서 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와 관계적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두 공격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공격성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를 29%, 관계적 가해를 38% 각각 설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피해와 관계적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과 공격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두 변인은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피해를 7%, 관계적 피해를 17% 각각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신체적 피해에는 부부갈등보다 공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계적 피해에는 공격성보다 부부갈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 (남아)

독립 변인	또래 괴롭힘		또래괴롭힘 가해				또래괴롭힘 피해			
			신체적 가해		관계적 가해		신체적 피해		관계적 피해	
	b	β	b	β	b	β	b	β		
부부갈등	.06	.06	.23	.22***	.17	.14*	.31	.23***		
공격성	.43	.43***	.40	.44***	.18	.17**	.33	.29***		
상수	.54***		.28*		.79***		.29			
R ²	.20***		.30***		.06***		.17***			

*p < .05 **p < .01 ***p < .001

<표 6>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여아)

독립 변인	또래괴롭힘 가해				또래괴롭힘 피해			
	신체적 가해		관계적 가해		신체적 피해		관계적 피해	
	b	β	b	β	b	β	b	β
부부갈등	.05	.06	.08	.09	.13	.15**	.36	.32***
공격성	.55	.52***	.63	.59***	.18	.19**	.24	.20***
상수	.30*		.29*		.68***		.51**	
R ²	.29***		.38***		.07***		.17***	

*p < .05 **p < .01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인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강도·해결은 모두 중간수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수준 역시 중간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빈도·강도·해결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권영옥(1998)의 연구결과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정도가 다르게 지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을 비교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박미연(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는 전체적으로 성별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신체적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두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아보다 남아가 신체적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에 비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 관계적 괴롭힘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rick & Grotpeter, 1996; 임지영, 1998; 이점숙·유안진, 1999; 이경남, 2001; 박연정, 2002)과도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여아 모두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피해보다 관계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에서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모욕감을 느끼고 상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아동기에 있어서 또래

집단의 중요성과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Hartup, 1992)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점숙·유안진, 1999). 또한 관계적 괴롭힘은 신체적 괴롭힘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교사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 또래괴롭힘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동의 내·외적인 부적응 행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관계적 또래괴롭힘에 대해 주의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의 가해 경험도와 아동의 공격성이 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Rona & Debra, 1998; 이상균, 1999; 김예성, 2000; 박미연, 2000)과 일치한다. 또한, 또래괴롭힘의 피해가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관계가 있다는 민유리(2000)의 연구와 일치하며,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려진다고 보고한 최진희(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은 가해자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괴롭힘의 피해와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은 또래괴롭힘에 대해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공격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를 신체적·관계적으로 더 많이 괴롭히는 동시에 또래로부터 신체적·관계적으로도 또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Olweus(1994)가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도발적 피해자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 그리고 Perry와 그의 동료들(1988)이 '공격성이 높은 피해자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와 유사하다. 공격성이 높은 피해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또래들을 신체적·관계적으로 괴롭히며, 또한 자신보다 더 강한 아이들에게는 공격성을 유발시킴으로서 또래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거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공격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아동을 자극함으로써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공격성을 또래괴롭힘의 가해 또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한 측면만 관련시켰으나, 또래괴롭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양 측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직접적 그리고 관계적인 또래공격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소명, 2001; 박보경, 2002).

부부갈등보다 포괄적 개념인 가족 분위기와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가족 분위기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회생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임경원(1997)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초로 하여 생활하는 가족분위기일수록 또래공격

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김혜원·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날수록 집단괴롭힘의 가해 행동이 빈번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가족분위기 내지 가정폭력을 통해서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박보경(2002)은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부부갈등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직접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아동은 부모가 부부갈등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동 역시 또래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의 공격적인 방식을 모방하여 또래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의 갈등상황은 아동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아동은 이런 상황에서 약자의 입장으로 수동적이 될 수 있으며 또래와의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아동발달의 주요 환경인 가족 내에서 부모끼리의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신체적 폭력에까지 이르는 빈번한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무감각적인 성향을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언어적·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아동은 폭력에 대해 정서적으로 둔감하게 되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게 되어 또래를 더 많이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폭력노출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폭력노출이 증가할수록 개인들은 폭력에 대해 정서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ullin & Linz, 1995), 실제 또래괴롭힘의 가해자들은 보통 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Olweus, 1994), 공감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igby, 1993). 또한, 또래괴롭힘에서 피해집단의 아이들은 부모가 갈등상황에서 상대배우자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에 대해 무기력한 대응책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은 강화될 수 있으며 또래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권영옥·이정덕, 1998; 박미경, 2000; 김민정·도현심,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것 보다 부모간 폭력을 관찰하는 것이 아동의 공격성과 더 밀접히 관련된다는 노치영(1998)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부부갈등의 노출이 아동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하위차원인 빈도·강도·해결의 경우도 아동의 공격성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다. 부모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

나고, 갈등의 정도가 크며, 부모가 부부갈등 후에 해결이 잘 안 되었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적대감이나 신체적 폭력 등의 높은 강도와 관련되었을 때 아동이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나 방식은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연구들과도 일치한다(Cummings et al., 1993; Davies & Cummings, 1994). 부모의 부부갈등 및 폭력은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아동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며 내면적이거나 외현적인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해 볼 때 가정 내에서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된 아동의 경우 간접적인 모델링을 통한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부갈등이 있을 때 상대배우자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가해, 신체적·관계적 피해에는 부부갈등보다 공격성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가해에는 공격성만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여아의 경우, 또래괴롭힘의 신체적·관계적 가해에는 공격성만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또래괴롭힘의 신체적 피해에는 부부갈등보다 공격성이, 그리고 관계적 피해에는 공격성보다 부부갈등이 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공격적 성향이 높은 남·여아 모두 또래를 신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괴롭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해 아동의 공격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분노에만 몰입하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타인의 슬픔과 분노 등의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감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을 교사와 아동이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고 이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동으로 하여금 소리내어 말하게 하는 문제해결 기술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현실을 살펴보면 한 학급당 아동의 인원수가 많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앞으로 아동의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또래괴롭힘의 관계적 피해에 대해 부부갈등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해 남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수동적이고 위축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 속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갈등상황에서 빈번히 싸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아동은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3곳의 학생들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나아가 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을 평가하는데 있어 모두 자기보고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초등학교 아동기의 특성으로 인해 응답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해 또래보고 내지 교사보고 등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또래를 괴롭히거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면접 및 객관적인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질적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또래괴롭힘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 변인 이외에 또래괴롭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장면에서 또 다른 변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이 부부갈등과 함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밖에 아동의 다른 요인들(예를 들어 공감, 사회인지능의 인지·정서적 측면들)이 부부갈등과 함께 또래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 또래괴롭힘을 중심으로 3개 변수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과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신체적 및 관계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한 후속연구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4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30일

【참 고 문 헌】

-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예성(2000).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명(2001). **가정폭력이 집단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81).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 김혜원·이혜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노치영(199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유리(2000). **아동의 행동 특성과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손희권·송해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경(2000). **부부갈등 및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정(2002).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림(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51-58.
-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님(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9(8), 37-52.
- 이만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윤중(1999). **왕따 리포트-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 방안까지**. 19-51. 서울: 우리교육.
-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8-180.
-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 분위기가 청소년의 또**

- 래공격성 및 또래희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선일보. 2003년 10월 7일자.
- 중앙일보. 2003년 8월 19일자.
-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끼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1965). 행동진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 Boulton, M. J. & Smith, P. K.(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Boulton, M. J. & Underwood, M.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owen, E. C. & Underwood, M. K.(1995). *Auger and spice and everything ni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of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8*(2), 367-380.
- Cummings, E. M., Simpson, K. S. & Wilson, A. (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78-985.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2.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Farrington, D. P.(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In M. Tonry & N. Morris(Eds.). *Crime and Justice*(Vol 17, 381-45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usec, J. E. & Lytton, H.(1988). *Social development-history, theory, and research*. NY: Springer Verlag.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1992).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s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434-454.
- Hartup, W. W.(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 In B. Laursen (Eds.).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3-22), San Francisco: Jossey-Bass.
- Hodge, E. V. E., Malone, M. J. & Perry, D. G.(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Kramer, L. & Gottman, J. M.(1992). Becoming a sibli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85-699.
- Lane, D. A.(1989). Bullying in school: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0*, 211-215.
- Mullin, C. R. & Linz, D.(1995).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 on judgement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449-459.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Press.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57-76), New York: John Wiley & Sons.
- Olweus, D.(1991). Bullying/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lt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411-448),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Olweus, D.(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7), 1171-1190.
- Pat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Rigby, K.(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54*(4), 501-513.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Sutton, J., Smith, P. & Swettenham, J.(1999). Bullying and 'theory of mind' :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8(1), 117-127.